

**사무엘상 27. 사무엘의 죽음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삼상 25 장 1-44 절)**

**들어가기**

25 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제 2 막을 연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죽음과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엔게디를 떠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 갈멜 족속 나발에게 무시를 당하고, 이에 격분해 군사들을 모아 나발을 치려 할 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대처로 인해 큰 화를 막게 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후 나발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되자 다윗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자신의 두 번째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1.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1 절)**

- 1) 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며 애도하였습니다.
  - ✧ 사무엘의 사망 연도는 대략 그의 나이 83 세 때인 B.C. 1017 년 경으로 추정.
  - ✧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서 영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쇠퇴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
  - ✧ 그는 한 평생 청렴 결백한 삶을 살았고, 비록 그의 자식들이 아버지만큼 신앙적 성숙함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또 다윗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 기쁨을 부으며 자신의 모든 영적 지휘와 권리를 다윗에게 넘겨 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
  
- 2) 사람들은 사무엘의 시신을 그의 집에 묻었습니다.
  - ✧ 그러나 그의 집 안에 묻었다기 보다는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것!) 그의 집에 속한 돌이나 밭에 묻었다고 보아야 할 것!
  
- 3) 이에 다윗은 엔게디를 떠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 ✧ '바란 광야'는 시나이 반도 북쪽에 위치한 지역 -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던 곳.
  - ✧ 아마 당시 사울 왕을 견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인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더 멀리 도망가려 했을 것이라 추측.
  - ✧ 또한 이 곳에서 다윗은 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오래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셨던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의지할 수 있었을 것!

**2. 이때 다윗은 마온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던 갈멜 족속 중 소문난 부자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8 절)**

- 1) 갈멜 사람 '나발'?
  - ① '나발' 이란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우매한', '괴악한' 등으로 번역.
    - 어떤 학자는 원래 이름은 다른 것이나 사람들이 '나발'이란 별명으로 불렀을 것이라 추측.
  
  - ② 그는 갈멜 사람이었는데, 당시 마온 지역까지 와서 목축업을 하고 있었음.

☆ 참고: '갈멜'

- ☆ 지리적으로 '갈멜'은 '마온'의 북쪽 약 1.6km 지점으로, 이전에 사울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후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던 곳! (삼상 15 장 12 절)
- ☆ 따라서 당시 대부분의 갈멜 사람들은 사울을 영웅시하였고, 사울의 영향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컸던 지역이었음! (Klein).

③ 당시 나발의 재산에 대한 예로 그에게는 양 \_\_\_\_\_ 마리와 염소 \_\_\_\_\_ 마리가 있었음!  
 - 재미있는 것은 2 절에서 저자는 나발의 이름을 밝히기도 전에 먼저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언급했다는 것! 곧 그가 당시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는지를 강조한 것!

④ 그런데 성경은 그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 라고 소개!  
 - 참고로 완고하고 악하다는 단어는 주로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목이 굳은' 교만한 사람에게 적용되었던 말. (ex: 출 33:3, 5; 34:9; 신 9:6; 사 2:19)

⑤ 나발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 이었음.  
 - '아비가일'이란 이름의 뜻은 '기쁘게 하는 자' 또는 '기쁨을 주는 자' 란 뜻.  
 - 성경은 그녀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라 소개!  
 - 참고로 여기서 총명하다는 말은 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았다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 (ex: 대상 22:12; 대하 30:22; 느 8:8; 시 111:10. etc.)

-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 -> 갈멜 족속 = 갈렙의 후손들이었다는 것!
- ☆ 대부분의 성경 학자들은 갈멜 족속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선두에 섰던 갈렙의 후손들이라고 해석!!
- ☆ 또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온'(Maon) 이라는 지명은 갈렙의 자손인 삼매의 아들 '마온' 에게서 유래되었다고 생각! (대상 2:45).
- ☆ 곧 나발은 구체적으로 갈렙의 후손 중 '마온'의 자손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측.
- ☆ 만약 그렇다면 한다면, 불행히도 나발은 그의 조상으로부터 부와 재물은 물려 받아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조상 갈렙의 믿음과 신앙은 제대로 이어받지 못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됨!

성도는 물질적으로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정받는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성도가 됩시다.

- 2) 특별히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양식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 ☆ 당시 양털 깎는 날은 유목민들에게는 추수의 때와 같아 큰 잔치를 베푸는 날이었음!
  - ☆ 그래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음! (창 38:13, Keil)
  - ☆ 이에 다윗은 열 소년을 보내어 음식을 얻어 오게 시켰음!  
 - 참고로 다윗이 특별히 열명의 소년을 선택해 보낸 것은 히브리 문화적으로 상대에 대한 최고의 예의와 존경을 표한 것을 상징! (Lange, Klein).

■ 특별히 주목할 것! -> 다윗은 그의 소년들에게 어떻게 나발에게 부탁하라고 했는가? (4-8 절)

① 자신의 이름으로 문안하라고 지시함!

- 어떤 학자들은 다윗과 나발 모두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에 형제의를 갖고 부탁했다고 해석하기도 함!

② 나발과 그의 가정, 나아가 그 집의 모든 소유에 대해 평강을 빌라고 지시! (6 절)

-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사람이거나 가정이 아닌 가축과 모든 소유에 평강을 빌어준 것은 구약 성경에 오직 이 구절뿐임!!!
- 더군다나 짧은 한절의 말씀 속에서 3 번씩이나 평강을 빌게 했다는 것!
- 곧 다윗은 나발에게 최고의 예의와 정성을 다해 축복을 빌게 했다는 것!

③ 자신의 부하들이 나발의 모든 목자들과 소유물들을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았으며, 밤낮으로 지켜 주었다는 것을 확인해 줄 것을 부탁!

- 자기 부하들과 나발의 목자들간에 친분을 확인해 보고, 무작정 찾아와 음식을 달라고 소동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상기시킴.

④ 좋은 날에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부탁!

- 학자들은 다윗이 지금껏 나발의 목자들과 양들을 보호해 준 것에 대해 충분히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일부러 좋은 날, 추수의 때를 기다려 찾아갔다고 해석.
- 또한 다윗은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최대한 낮추어 나발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그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
-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의 간구를 들으시며(시편 10:7), 날마다 그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됩시다.(시 22:28)

4. 이런 다윗의 부탁을 들은 나발은 그 즉시 단호하게 다윗의 청을 거절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무시하였습니다. (9-11 절)

1) 나발의 말을 주목해 보면,

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 친족이라 믿고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다윗을 무시하고 경멸했다는 것!

② ‘요즈음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 나온 종인양 비꼬고 무시하며 경멸했다는 것!

③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 또한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인지? 에 대한 관심 없이, 그저 세상을 떠도는 불량배들 아닌가? 란 식으로 무시했다는 것!

■ 그런데 실제로 다윗은 누구인가?

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

- ② 사무엘을 통해 기름부음을 받은 자!
- ③ 더 나아가 요나단을 비롯한 지난 시간 사울 왕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계 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런데도 일개 졸부에 불과한 나발은 이런 다윗에 대해 오만하고 불손한 태도를 취하며 멸시한 것은 그가 평소 얼마나 경건하게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둔감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 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나발과 같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 5. 이런 나발의 반응에 다윗은 크게 분노하여 즉시 나발의 집을 진멸하려고 하였습니다. (12-13 절)

1) 200 명은 남아서 모든 소유를 지키고 하고, 다른 400 명은 모두 칼을 차고 자신을 따를 것을 명하였습니다.

■ 여기서 생각할 것 하나!

- ✧ 지난 시간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사울을 용서하고 풀어준 다윗과 오늘의 다윗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얼마 전에는 냉정하고 사려 깊은 행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윗이지만, 거친 말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격분하며 분노하는 다윗을 볼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성과 싸우며, 온전히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우리도 시험에 들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 6.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그 즉시 다윗을 찾아가 다윗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4-31 절)

- 1) 다윗과 나발의 관계에 대해 위험을 느낀 사환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모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 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나발의 목자들에게 선대하며 보호해 주었다고 알림! - 바른 평가!
  - ② 나발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거칠게 대하며 모욕했음을 전함!
  - ③ 그러므로 당장 아비가일이 이 일에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생각할 것을 청함!

우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논하기 앞서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섬기는 주인의 집에 곧 일어나게 될 재난을 감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그 재난을 막을 힘도 없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그 집에서 제일 현명한 주인인 아비가일을 생각하고, 찾아가 모든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환난과 시험에 때를 감지할 줄 알아야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하고 지도를 받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 특별히 주목할 것! -> 이렇게 지혜로운 사환의 눈에 비친 주인 나발의 모습은?  
17 절,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

- ☆ ‘불량한 사람’ - 원어로는 벨리알의 아들이란 말로 ‘무가치한 사람이란 뜻’
- ☆ 나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아는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늘 생각하자.

2) 이에 아비가일은 즉시 음식을 수레에 싣고 다윗을 찾아 갔습니다.

- ☆ 총 6 종류의 음식을 즉시 준비하였음!
  - 떡 이백 덩이, 포도주 두 가죽 부대, 요리한 양 다섯 마리, 볶은 곡식 다섯 세아, 건포도 백 송이, 무화과 몽치 이백 개.
  - 결코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음!
    - 그 만큼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뜻할 수 있음!
    - 아니면 그 즉시 아비가일이 기지를 발휘하여 준비했다고도 볼 수 있음!
- ☆ 결국 이런 아비가일의 빠른 판단과 선행으로 나발의 모든 가족과 소유는 안전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곧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 공동체를 살리고 지킬 수 있음을 보여 준 것!

3) 그런데 아비가일은 이 일을 남편 나발에게는 숨겼다는 사실!

- ☆ 아마도 나발이 이 사실을 미리 알게 되었다면 틀림없이 반대 했을 것임!
- ☆ 때로는 침묵하고,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분별하였다가 일을 처리하고 말하는 것도 큰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4)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24-25 절)

- ①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었다!
  - 자신을 낮추어 최대한의 존경과 겸손함을 포함!
  - 더군다나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총명한 여인이었기에.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알았다고도 추측! (Smith, Fay).
- ② 그래서 다윗을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은 그의 여종으로 표현!
- ③ ‘모든 죄악을...나에게로 돌리소서~’ 시고.
  - 남편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아비가일의 희생 정신을 발견.
- ④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 ‘귀에 말하게 하다’ 라는 표현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은밀하면서도 진지하게 전달하고 호소할 때 사용되는 표현! (신 31:11; 룿 4:4)

- 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곧이 불량하고 미련한 사람 곧 자신의 남편을 상대할 필요가 있는지? 되물으며, 자신을 불쌍히 보아 선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
- ⑥ 자신이 이렇게 극적으로 다윗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 고백!
- ⑦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치시며 그의 집을 지키시고 축복하실 것을 고백!
- ⑧ 특별히 31 절 주목!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 여기서 ‘슬퍼하실 것’ 이란 말은 원어적으로는 ‘거침돌이 될 것’ 이란 뜻!

곧 아비가일은 지금 자신이 다윗을 만나러 온 것은 단순히 남편 나발의 구명을 위한 사사로운 차원이 아니라, 보다 더 높은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인식했다는 것! (Klein, Fay)

**7. 아비가일의 간청을 받아들인 다윗은 보복할 맘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32-35 절)**

- 1)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잡아준 아비가일의 행동이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찬양하였습니다.
- 2) 또한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며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 3) 아비가일이 준비한 모든 음식을 받고, 그녀에게 평안히 돌아갈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8.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발은 왕 같은 잔치를 열어 즐기고 있었습니다. (36-38)**

- 1) 그의 이름처럼. 얼마나 어리석고 모자란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해 주는 장면이 아닐까?
  - ✧ 지금 아내는 목숨을 내어 놓고 자신과 가족들을 살리려고 다윗을 만났는데, 그는 정신을 잃을 만큼 만취해서 스스로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
- 2) 다음 날 아침 나발이 정신을 차렸을 때, 아비가일은 모든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 ✧ 그러자 그 날부터 나발의 마음이 낙담하여 돌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 ‘낙담하여’ -> 문자적으로는 ‘그의 마음이 그 사람 안에서 죽었다’ 란 뜻.
    - 즉 나발의 ‘기뻐하던 마음’(36 절)이 이제는 ‘죽어버린 마음’으로 바뀌어 버린 것.
- 3) 이때부터 나발의 몸은 돌처럼 굳어가 결국 10 훔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 ✧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는 표현은 그가 강한 충격을 받아 어떤 심인성 질환에 걸린 것을 말함 -> 예를 들어 심장 쇼크, 뇌출혈로 인한 중풍에 걸린 것으로 추측.

4)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신 것이라 기록하였습니다. (38 절)

**9. 나발의 죽음을 접한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신의 두 번째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1)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으로 하여금 악한 일을 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 자신을 대신해 원수를 갚으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

2) 그 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아비가일에게 청혼하였습니다.

✧ 그럼, 이런 다윗의 청혼과 아비가일의 결정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 우선 미망인의 애도 기간은 율법적으로 7 일을 의무 기간으로 정함
- 그래서 율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 그럼 왜 다윗은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을까?

- 아마도 아비가일의 지혜와 신앙을 보면서 자신의 내조자가 되기에 적격한 여인으로 생각했을 것!
- 다윗의 처 미갈이 다른 남자와 재혼하였기(44 절) 때문.

3) 그 후 다윗은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자신의 셋째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 '아히노암' 이란 이름의 뜻은 '나의 오빠는 유쾌하다' 란 뜻.

✧ 학자들은 다윗은 아히노암과 결혼함으로써 이후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됐을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이끄는 데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 해석.

✧ 다윗은 아히노암과의 사이에 '암논' 이라는 아들을 얻음. (삼하 3:2).

4) 사울은 다윗의 처 미갈을 발디에게 주어 혼인케 하였습니다.

✧ 일찍이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대가로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

✧ 마찬가지로 사울은 다윗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미갈'을 발디에게 혼인케 하였을 것.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로 묵상했거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중보기도 나눔.**